

수상 소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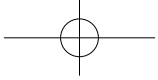
‘문학은 꿈이다’라는 화두

서준환

0

지금 이 순간 어떤 인정과 격려에 답사로 제출해야 할 수상 소감문은 참 쓰기 난감한 문학 장르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군요. 수상 소감이라고 하면 수상자로 통보받거나 상을 받게 된 순간 느껴진 감회일 것입니다. 그런 감회라면 몇 줄의 감정적인 토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문학실험실 편집주간이 주문하기를 자그마치 20매나 쓰라니 아무래도 수상 소감문은 몇 줄의 감정적인 토로만으로 이뤄지는 글이 아닌가 보네요.

저는 고민 끝에 단장 형식의 술회를 택하는 것으로 이 주문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그러는 게 벽찬 감회나 감정적 토로가 마냥 늘어지지 않도록 제어하는 데 효과적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입니다. 또한 단장 형식은 두서없는 글을 두서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착시 효과도 유발할 수 있고요. 게다가 원고량도 빨리 늘어납니다. 제 난감함에 공감하신다면 아무쪼록 양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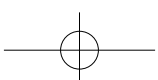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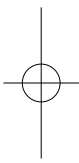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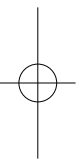
다소 뜬금없지만 저는 이 수상의 영예와 감회를 누구보다 앙토냉 아르토와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아르토는 제게 과거완료적인 지식의 기념비가 아닙니다. 52세로 삶을 마감할 때까지 모두 합쳐 스무 해 가까이 정신병원에 뺨질나도록 들락거린 아르토를 이 자리에 우선 호명하는 것은 그가 꿈과 고통의 대명사나 마찬가지로이기 때문입니다. 아르토는 참혹한 심신의 고통 속에서도 불가능함의 가능성에 처음으로 눈을 돌리고 그 꿈을 꾸다 죽은 시인이자 연극인이었습니다. 불가능함의 가능성이라니, 실패는 이미 예정된 셈이었습니다. 아르토는 모든 면에서 실패하려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삶이 고통이었고 예술이 꿈이었습니다. 반대로 예술이 고통이고 삶이 꿈이기도 했습니다. 꿈과 고통을 합쳐 연금술적인 표현 형태에 다다르고자 몸부림쳤습니다. 연금술은 초월의 꿈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잔혹한 고통의 제의이기도 합니다. 고통이 없으면 초월의 꿈도 없습니다. 사실 둘은 한몸입니다.

2

꿈과 기질과 언어. 이 셋은 모두 내가 나 자신의 온전한 주인일 수 없음을 일깨워주는 일상적 지표들입니다.

3

잠자리의 꿈이 왜, 어떻게 생겨나는지 아는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합리적인 해명의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꿈은 모든 게 합리적으로 해명 가능해야만 한다는 이성적 주체의 강박만을 들춰 보일 뿐입니다. 꿈은 여전히 해묵은 수수께끼로 남



아 사람들의 잠자리에서 유령 들린 베일처럼 나올거립니다. 한 가지만
 큼은 확실합니다. 꿈은 자기에게 낯선 뭔가가 생명으로 지펴져 스스로
 를 낫설게 하는 타자의 징표라는 것. 우리는 스스로 꿈을 꾸지 못합니
 다. 우리도 모르는 누군가가 아득한 밑자리에서 우리로 하여금 꿈을 꾸
 게 할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누군가에게서 꿈을 증여받고 그
 안에 머물습니다. 이처럼 꿈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빚어내는 게 아닙니다.

4

저는 왜 제가 하필 지금 같은 기질을 띠고 태어나 그런 기질에 따
 른 문학을 하는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곰곰이 돌아봐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합리적으로’ 이런 기질이 형성
 될 만한 계기를 되짚어볼 수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그게 합리
 적인 해명의 유혹이거나 거짓된 의미 부여에 불과하다고 결론 내렸습
 니다. 제가 지금 같은 문학을 하는 것은 의식적인 결정이나 판단 때문
 이 아닙니다. 애초부터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있다면 오로지 저를
 눈멀게 하는 매혹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매혹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한 개인에게서 나타나는 기질의 형성은 흥미로운 문제입니
 다. 제가 불교에서 말하는 ‘업식業識’에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5

꿈과 기질이라는 게 이성과 의식의 주체로서 자기 자신의 온전한
 통합성에 균열이 나 있다는 지표/징표다? 듣고 보니, 뭐, 그야 그럴 수
 있지. 최소한 거기까지는 무난히 넘어간다 해도 문제는 언어입니다. 많
 은 사람이 언어를 자기 스스로의 통제에 종속된 의사 전달의 도구쯤으

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언어는 주체적인 의식의 부산물입니다. 말의 주인은 자신입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뭐가 말할 때는 말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는 믿음이 당연하게 여겨 집니다. 제 뜻대로 말을 부리는 것이니까요. 물론 사람들도 자기가 아니라 말이 말을 한다, 말이 말을 불러낸다고 말할 때가 이따금 있긴 합니다. 하지만 말에 대해 뭔가를 새로이 깨달아서는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부정적인 경우, 예컨대 누군가가 아무렇게나 주절거릴 때만 쓰이는 억압의 표현입니다. 저는 이와 같이 말을 향한 못사람들의 억압과 맹신이 문학에 대한 오해 일반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말 또는 말의 움직임은 꿈과도 같습니다. 어디서 왔고 어떻게 주어졌는지 모른다는 의미에서 기질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찌면 내가 아니라 누가 말하는지 모를 때 하는 말에서 아찔한 심연이 열리는 게 아닐지.

6

여기서 저는 김현 선생의 화두 ‘문학은 꿈이다’와 만납니다. 물론 김현 선생이 저와 똑같은 각도에서 문학이 꿈이라고 선언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과 똑같이 맞추고자 관련 문헌을 일부러 뒤적거려 보지도 않았습시다. 그저 그 화두에 제 말하기나 글쓰기 체험에서 생겨난 또 하나의 생각을 자유로이 덧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 화두의 매혹과 영향이 제 안에서 더욱 생생하게 영글도록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문학은 우리에게 가해지는 억압을 뒤집어서 드러내며 불가능한 초월로 향해 가도록 부추기는 꿈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전혀 알 수 없는 누군가가 자비롭게 증여해주는 언어의 흔적이기도 합니다. 꿈은 우리가 자못 낮은 타자를 마중하는 체험입니다. 제 생각에는 문학도

그러합니다. 그 타자는 여러 이유에서 가려진 존재나 불교의 범성일 수도 있습니다. 까마득한 우주심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숨겨진 억압의 명울일 수도 있습니다.

7

저는 이번의 김현문학패가 그동안 써온 제 텍스트보다 저도 어쩌지 못하는 제 기질에 우선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텍스트의 문학적 성취 여부를 떠나 거기 나타나 있는 어떤 기질에 상이 주어진다 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제멋대로 그리 받아들이고 나니 마음이 더욱 뿌듯해집니다. 최소한 제게는 김현문학패가 누군가의 기질 또는 스스로도 모르고 택한 문학적 방향에 대해 독려하는 화답으로 여겨집니다.

8

끝으로 감사 인사 한 말씀 더. 저를 이끌어주신 여러 선배와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두 분, 최수철 선생님과 황지우 선생님에 대한 감사 인사는 이 자리를 빌려 꼭 전해 올리고 싶군요. 최수철 선생님과 는 아무것도 모르는 소년 시절에 만났습니다. 황지우 선생님과 는 머리가 조금 굽어진 후에 만났습니다. 소년 시절이라 아무것도 모르고 머리가 조금 굽어진 후라 교만해진 저를 두 분 선생님은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자상하게 가다듬어주셨습니다. 저는 최수철 선생님과 황지우 선생님에게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두 분은 모두 김현 선생의 제자들입니다. 이 세상은 불가해한 인연의 실물들로 얽히고 이어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더욱 강해집니다.